

▶ '비빔밥 신나게! 즐겨봐 맛나게!'... 전주비빔밥축제 개막

화려한 맛의 향연, 나누고... 즐기고...

오늘 전국요리경연 라이브
불거리로 음식사진 전시 진행

내일 '우리동네 비빔밥' 퍼포먼스
29일 '우리집 비빔밥' 열려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2017 전주비빔밥축제'가 26일 오후 2시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미식도시 전주를 찾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가졌다.

14개 시군에서 모인 특산품을 활용한 고품질을 엮어 만든 대형 비빔밥과 장애인, 우체국집배원, 소방관, 문화해설사 등 전주시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의 비빔밥을 만들어 나누는 대동비빔퍼포먼스로 진행된 개막식을 시작으로 5개 분야 38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비빔밥축제가 오는 29일까지 펼쳐진다.

그야말로 대동단지로 펼쳐진 개막행사는 신명나는 타악 공연과 함께 형형색색의 비빔밥들이 행사장을 가득 채워 관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며 전주비빔밥이 단순한 음식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즐기는 화합의 상징으로써 의미를 더한 행사였다.

26일 개막식에 이어 27일은 전국 요리관련 학과 학생과 전문가 등 900여명이 전주지역 특산물과 식재료를 활용해 다채로운 요리의 장을 펼치는 전국요리경연대회 라이브 경연이 펼쳐지며, 불거리로 요리전시 경연과 음식사진 전시 경연이 축제기간동안 진행된다.

28일에는 총경로 차있는 사람의 거리에서 '33동 우리동네 비빔밥' 퍼포먼스가 전주시 33개동 주민들을 포함한 시민과 국내외의 관광객 등 5,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한 화합과 나눔의 장으로 펼쳐진다.



신명나는 북 장단에 맞춰

26일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무형문화재대전'에서 한국문화재단예술단의 축하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축제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가족과 친구, 단체가 팀을 이뤄 개성있는 비빔밥을 연출하고 우수비빔밥으로 선정되면 시상이 수여되는 '우리집 비빔밥'이 진행된다.

그 밖에도 게임을 통해 비빔밥 재료를 찾아 비벼먹는 프로그램인 '비빔밥을 찾아라', 비빔밥의 유래를 체험해보는 '비빔전설', 어린이요리사 1,000여명이 함께 참여하여 비빔밥을 체험하는 '우기종기비빔밥', 전국의 버스커들이 모여 다채로운 공연을

펼치는 '비빔문화공연', 아시아의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키쿱콘서트', 개성있는 집밥대결 '웰빙 요리경연대회' 등이 펼쳐진다.

아울러, 세계거리음식 코너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세계의 다양한 거리음식을 맛볼 수 있으며, 전통술 빚기 체험과 페백체험도 함께 할 수 있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는 글로벌 음식관광축제 제로 거둬나고 있는 전주비빔밥축제를 활용

하기 위해 일본 NHK, 영국 웨일즈 공영방송 등 해외 방송사들의 협력이 함께 진행되었다.

조직위 관계자는 "2017 전주비빔밥축제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화려한 막을 열었다"며 "이번 주말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인 전주비빔밥을 비롯한 다양한 전주의 음식들을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전주비빔밥 축제를 찾아 좋은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일상에서 만나는 예술' 지역주민들과 공유

문화파출소 덕진, '오픈 하우스' 열어

지난 1월 개소한 전북문화관광재단(이병천 대표이사) 문화파출소 덕진은 '일상에서 만나는 예술'이라는 슬로건 아래 그간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

세계절을 테마로 한 기획 프로그램은 거창한 예술 활동이 아닌 바느질·플라워데코·소셜쓰기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음식주와 연결된 것들로 구성되어 주민들의 삶 속에 문화예술이 정착할 수 있게끔 하였다.

문화파출소 덕진은 그동안 진행해 온 프로그램의 성과를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는 'Open house' 주간행사를 내달 4일까지 갖는다. 오픈식은 28일 오후 2시.

행사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문화파출소에 더 쉽게 다가오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다. 그간 교육에 참여한 주민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담벼락전시'부터 지역예술가와 주민 그리고 교육 참여자들이 함께 공연하는 '옥상음악회', 길을 지나다 우연히 들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꾸며진 '앞마당마켓', 지역주민들의 수고가 많았던 강좌를 중심으로 한 '나무집 클래스' 등을 만날 수 있다.

이와 함께 'open house 주간 행사'에는 문화파출소를 운영하는 사업관계자(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전국 문화파출소 9개소·덕진경찰서)를 초청하여 현재까지의 운영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문화파출소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전망이다.

한편 '문화파출소 조성·운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의 협력 사업으로 전국 9개의 치안센터를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도내지역은 전북문화관광재단이 금암치안센터의 범죄피해자치유센터를 '문화파출소 덕진'으로 조성해 운영 중이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과 자문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난다는 취지다. /정해은 기자

전주영화촬영소 진로체험 실시

(사)전주영상위원회는 지역 청소년 자유학기제를 대비한 '전주영화촬영소 진로직업체험'을 26일 실시했다.

이번 진로직업체험은 교육업무 협력 활성화를 위해 전주교육지원청과의 협력으로 진행됐다. 체험에는 전주교육지원청이 선착순으로 신청한 기린중학교 외 3개 학교 210여명의 학생들이 오전과 오후 팀으로 나누어 참여했다.

이날 참가 학생들은 영화진로, 영화문화체험, 자유체험 등의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은 영화진로체험에선 영화 '창궐'(주연 현빈·장동건)세트 투어 및 촬영시설 프로세스 체험과 영화특수분장·영화촬영감독·영화합작체험이, 영화문화체험에선 영화판도마임과 핸드프린팅 등이 진행됐다.

또 자유체험은 영화 소품전시실 관람 및 영화의상 및 특수소품체험, 전주(전북)에서 촬영한 영화의 촬영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로케이션 사진전, 나도 영화배우 포토존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정병각 운영위원장은 "전주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다양한 영화관련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발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10월의 마지막 주말... 가족·친구와 함께 공연보러가자

소리문화전당, 뮤지컬 '정글북' 밴드 '잔나비'의 무대 마련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10월의 마지막 주말을 즐길 수 있는 기획 공연 2편을 잇따라 선보인다. 송승환이 만든 단 하나의 가족 뮤지컬 '정글북'과 루기에서 대세 뮤지션으로 떠오른 '잔나비' 공연을 마련했다.

우선 올해 여름 서울에서 연일 매진행렬을 일으키며 최고 흥행작으로 자리매김한 가족 뮤지컬 '정글북'은 28일과 29일 모악당에서 5회 공연한다.

PMCKIDS 예술감독 송승환의 이름을 걸고 만든 첫 번째 가족 뮤지컬로, 작년 여름 초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차원이 다른 가족 뮤지컬이라는 평을 받았다.

초연 당시 100회 연속 매진과 함께 6만 5천명이 넘는 유료관객을 동원했으며, 1년 만에 돌아온 2017년 여름에도 예매순위에서 항상 상위권을 맴돌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공연장에 들어오는 순간 정글에 온 듯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화려한 무대와 웅장한 사운드, 12종 이상의 다양한 동물들의 노래와 안무는 어린이들 눈을 사로잡기 충분하다.

실제 크기에 버금가는 코끼리가 등장하면 모든 관객이 환호하며, 그야말로 한 시도 눈을 땔 수 없는 80분 동안의 생생한 정글 속 이야기가 펼쳐진다.



뮤지컬 '정글북'의 한 장면.

가격은 R석 5만5천원, S석 4만4천원이며, 27일까지 예매 시 30% 특별할인 된다.

28 오후 7시 연지홀에 마련된 또 다른 무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표 음악 시리즈 아트스테이지소리엔 '잔나비'가 출연한다.

'잔나비'는 1992년생 원승이씨 동갑내기 친구들로 결성된 밴드다. 2014년 펜타포트, 2015년 그린플러그드에서 신인상을 받으며 실력을 인정받았고 최근 대부분의 음악페스티벌에 초청 받고 있다.

2016년 첫 정규앨범 '몽키호텔'을 발표 한 이후 혼술남녀, 디어 마이 프렌즈 등 드라마 OST에도 참여하며 대중성을 겸비한 밴드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정해은 기자

이들의 음악은 산울림 밴드를 오마주하는 등 사이키델릭 성향의 '한국형 록' 사운드다.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불꽃없지만'은 70년대 빈티지 팝 스타일에 한국적 록 색깔을 더해 명곡으로 꼽힌다.

유려하고 선명한 멜로디에 풍성한 사운드와 코러스, 단순하면서도 경쾌한 리듬의 음악들은 마치 뮤지컬 합창곡을 듣는 듯한 느낌의 '퀵'과도 닮았다.

단독 콘서트를 2분 만에 매진시키는 등 가장 핫한 밴드임이 분명한 '잔나비'의 전주 공연은 관객들을 볼 줄 아는 관객으로 만들어 줄 것으로 보인다.

가격은 전석 3만원.

/정해은 기자

칸투스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8일 군산시

군산근대역사박물관(관장 문세환)이 오는 28일 '칸투스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악회는 우리지역의 다양한 문화공연을 활성화 하고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음악회를 진행하는 칸투스필하모닉 오케스트라(단장 손성욱)는 2014년 시민 10여명이 모여 창단한 군산 최초의 커뮤니티 오케스트라다.

이번 연주회는 블루탱고(bluetango)를 시작으로 벨라 오브 더 볼(ball of the ball), 레인(Rain)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선곡들이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흥부골 풍류', 29일 남원 사랑의 광장서

문화의 달과 제25회 흥부제를 기념하여 '흥부골 풍류' 공연이 오는 29일 오후 5시 30분 사랑의 광장 야외 무대에서 1시간동안 열릴 예정이다.

국립민속극악원 주체로 열리게 되는 '흥부골 풍류'는 모듬북 공연을 시작으로 기악합주 '금강산, 뽕뽕타령', 민속무용 '교방굿거리' 등 민속음악과 춤을 선보이고, 단막극 '놀부 박타는 대목'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국악으로 마련된 흥의 무대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남원의 향토 축제인 제25회 흥부제와 관광주간에 맞춰 개최돼 남원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국악공연을 손쉽게 접하고 즐거운 여행의 재미와 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주) 삼현이엔지
업종 : 자동차부품업체

대표이사 **강 현 창**

전북 남원시 광지동 1길 20-15 (광지동)
TEL. (063) 625-0271
FAX. (063) 626-0275
H.P. 010-5511-9344
E-mail. khc3h@naver.com

일식 전문점 **미가도 일식**

각종알이회/광어/우럭 등/낙지/기타자연산

대표 **김 운 관**

남원시 동현길 86 (하정동)
TEL. (063) 625-2044
H.P. 011-680-2046

참치회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곳!
오양씨월드

대표 **형 남 민**

남원시 권동2길 12-82(도동동) 전영사위주채명회
TEL. (063) 633-0602
H-P 011-658-3259
H-P 010-4164-3259

krf
Clean & Green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 **오진휴**